보험-카드사 수수료 갈등 소비자 불편

수수료 하향 요구로 티격태격…일부 보험료 카드결제 불가

보험사와 카드사간 수수료 인하 논란으로 일부 보험료의 카드결제가 불가능해져 소비자 불편이 우려된다.

신용 카드사들이 카드 결제 수수료 인하요구를 거부하자 보험사들이 일부 상품에 대해 카드결제를 제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은행을 방문해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거나 자동이체를 이용해야 한다.

17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앞으로 일부 순수 보장성 상품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제한하기로 했다. 종신보험·연금보험· 저축성 보험 등 대부분 상품은 은행을 통한 자동이체나 고객의 직접 납부만 가능해진다.

삼성생명은 이 같은 내용의 협상을 삼성카드와 마무리 짓고 금명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교보생명도 최근 고객들에게 '카드사들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다음달부터는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보험료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다.

교보생명은 현재 카드로 납부되는 보험료의 3%가량을 카드사에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으나, 이 수수료율을 대폭 낮춰줄 것을 카드사에 요구하고 있다.

대한생명도 비슷한 협상을 카드사들과 진행하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보험사들이 신용카드 결제 제한에 나선 것은 그동안 3%대 높은 수수료를 받아온 카드사들에 대처할 방안이 없었지만,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 맞대응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으면 해당 보험사의 상품 전체가 카드 결제 대상이 됐으나, 최근 관련법 개정으로 일부 상품으로 결제 대상을 제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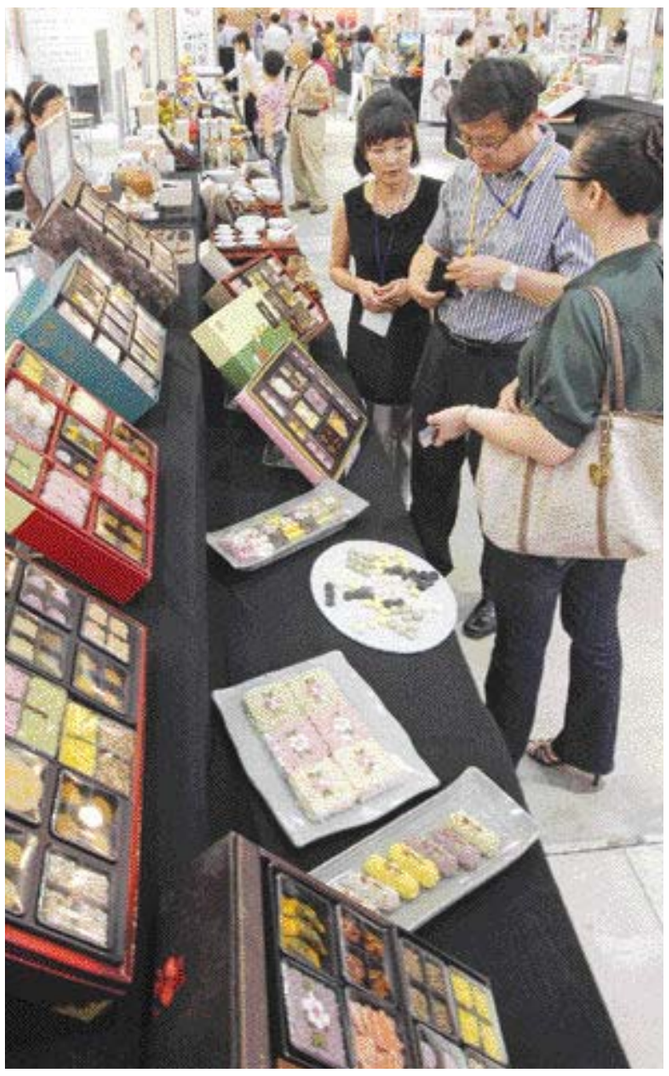
더욱이 삼성, 교보, 대한생명 등 메이저 보험사들은 터무니없이 높은 카드 수수료율이 낮아지지 않을 경우 보험료 카드 결제를 대폭 축소하거나 허용하지 않는다는 강경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 회사가 현재 국내 생명보험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편가중이 우려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골프장 카드 수수료율이 1.5%에 지나지 않는 상황에서 3%의 수수료율은 지나치게 높다"며 "보험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라도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보험사들의 카드 결제 거부로 불편함이 커질 수밖에 없는 처지다.

회사원 김모(40)씨는 "세금, 공과금 등 카드 납부 대상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데 보험사들만 카드 결제를 거부한다니 이해하기 힘들다"며 "카드사들도 온 국민이 내고 있는 보험료에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연합뉴스



한가위 명절선물상품전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2010 한가위 명절선물상품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한과 등 다양한 명절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카드회원 불법모집 집중 단속 나선다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사들의 불법 회원 모집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에 나섰다.

17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카드사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휴가철 행락지에서 벌어지기 쉬운 카드 모집인들의 불법 회원 모집행위를 근절하라고 주문했다.

인파가 몰리는 수영장이나 놀이공원 등에서 일부 카드 모집인들이 고가의 입장권을 경품으로 내걸고 신규 회원을 모집하는 등 과거의 행태를 되풀이할 조짐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고정 부스없이 백화점이나 공원 등에서 카드 회원을 모집하거나 연회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적발된 카드 모집인은 불법 모집인으로 등재되고 3개월에서 2년까지 활동이 금지된다.

이 같은 규정에도 최근 KB카드의 분사가 공식화되는 등 카드업계의 지각변동이 예고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카드 모집인들의 불법 행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 회원모집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카드사 임직원의 연루 여부까지 따져 함께 제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우회상장 코스닥 '회사 쪼개기' 주의

100% 지분 소유뒤 자회사로 분리…투자자 피해우려

증시에 우회상장한 코스닥사가 기존 사업을 물적분할한 뒤 헐값에 팔아치워 사익을 챙기고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물적분할은 기존 회사가 새로 설립한 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해 새 회사를 완전 자회사로 하는 회사 분할 방식이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07~2009년 이뤄진 162개 상장회사의 분할공시를 분석한 결과, 물적분할을 한 123개사 가운데 28개사가 우회상장한 코스닥사로 파악됐다. 존속 회사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는 인적분할은 39개사였다.

이들 우회상장 코스닥사는 우회상장 이후 기존 코스닥 사업을 물적분할해 계속 보유하기보다는 전 최대주주 등에게 되파는 경우가 많았다.

28개사 가운데 21개사는 대부분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수준에 매각했다. 이 중 11개사의 경우는 코스닥 전 최대주주에게 팔았다.

특히 우회상장사는 물적분할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 영업권 등을 일시 상각해 평균 97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손실은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전가되기 마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분할은 분할회사의 매각으로 기존 사업이 중단되는 등 투자환경과 사업구조에 중요한 변동이 생길 수 있다"면서 "우회상장과정 등에서 대규모 손실이 투자자에게 전가될 수 있으므로 투자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앞으로 우회상장사를 중심으로 주주총회 안건 등에 분할계획, 신설회사 매각계획, 관련 예상손실 등을 기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무등시장 씨름대회

20일 공영주차장서

무등시장이 오는 20일 오후 4시 공영주차장에서 씨름대회를 개최한다.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씨름대회에서는 남도민요 공연을 비롯해 관객과 함께하는 타악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20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19일까지 무등시장 상인회로 신청하면 된다. 씨름대회 1등에게는 상금 30만원과 트로피를 수여하고 참가선수 전원에게 기념품을 제공한다. 문의 070-4045-1319.

/이은미기자 emlee@

증권사 단기유동성비율 100% 이상 의무화

내년부터는 증권사들이 단기 유동성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등과 공동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회사 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관리기준에 따르면 각 증권사는 지급보증이나 파생상품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중요한 현금흐름을 측정하고 단기(1·3개월)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회사의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는 경영진이 마련한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과 절차 등을 승인하고 유동성 현황, 위기상황 분석 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아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또 회사는 유동성 위기상황 분석 결과를 반영해 위기상황에 대한 단계별 대응조치 등을 명시한 '비상자금 조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에 대한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커져 관리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가격 비싸도 힘? 세탁기 대형화 바람

대우일렉·삼성·LG전자 등 17kg 대용량 제품 잇따라 출시

두꺼운 이불 빨래도 가능한 대용량 세탁기가 인기를 끌고 있다.

17일 가전 업계에 따르면 대우일렉트로닉스,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가전 3사가 소비자들의 대형 세탁기 선호 추세에 맞춰 17kg 대용량 세탁기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세탁기 대형화 바람은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선도하고 있다. 대우일렉은 지난 6월 두꺼운 이불을 빨거나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빨랫감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17kg짜리 대용량 세탁기를 선보였다. 17kg짜리 대우 클라쎄 공기방울 세탁기는 출시 한 달 만에 7000대를 판매하는 등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대우일렉 관계자는 "클라쎄 세탁기의 출고가가 기존 14kg 용량 제품과 비교할 때 최고 70% 이상 비싸지만 판매량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광주전자도 17kg짜리 대용량 전자동 세탁기를 최근 내놨다. 이 제품은 하우젠 버블 17kg 제품 〈사진〉에 채용된 DD(Direct Drive) PLUS 인버터 모터를 탑재해 드럼세탁기 수준의 헹굼력과 세탁력, 탈수력을 자랑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으로 빨랫감을 모아놓았다가 한꺼번에 빠는 추세가 보편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LG전자도 지난해 출시한 17kg 용량의 트롬 드럼세탁기가 월평균 6000대가량 팔리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